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개정, 저류시설 설치 허용

- 국토해양부장관(장관 : 권도엽)는 도시공원 중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에 저류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11. 8.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여름철 집중호우 시 일정 양의 빗물을 가두는 시설

- 그간 근린공원·체육공원 등과 달리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규모가 작고 어린이 안전측면을 고려하여 저류시설 설치를 제한하였으나, 각종 개발에 따른 콘크리트 포장 등으로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일시에 하수도로 유입되어 저지대 침수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저류시설 설치를 허용한 것이다.
- 저류시설은 도시공원 이용자의 안전과 도심내

집중호우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계획을 통하여 배수기능을 갖춘 지하매설형으로 설치된다

- 또한 국토해양부는 금년말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도심 내 상습침수지역을 대상으로 전국에 20개소를 선정하고, 2012년에 시범사업을 시행 하는 등 연차적으로 도시공원의 방재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 국토해양부 관계자에 따르면, “금번 조치로 도시공원에 방재기능이 강화되면 기후변화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게릴라성 집중호우시 주택·상가 등의 침수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도시공원을 활용한 저류시설 유형]

- 도시공원을 활용한 저류시설은 재해저감 기능을 담당하는 공원시설의 하나로 생태형·운동시설형·지하매설형·복합형으로 구분
 - (생태형) 못·습지·생태도랑 등으로 구성
 - (운동시설형) 지하수위가 낮은 곳에 운동장과 체육시설 위주로 구성
 - (지하매설형) 지하에 저류조 설치, 지상은 운동장·잔디밭으로 구성
 - (복합형) 습지와 못 그리고 운동장 등을 복합적으로 구성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정보원클릭시스템」 개발·보급

-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어느 봄날, 논두렁을 태우다 화재가 발생하여 가옥과 창고 등이 불에 타고 마을 앞의 송전탑이 소실되었다. 이어 초속 20미터의 강풍이 불면서 산불로 번져 산 아래 도로변 주유소까지 불씨가 날리면서 소방관들 뿐만 아니라 관할 군청 공무원들과 인근 군부대까지 진화에 나섰으나 산 중턱에 위치한 목조사찰 문화재와 산림 30만ha가 소실되고 나서야 어렵게 불길이 잡혔다.
- 위 사례는 가상 상황이지만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문화재청, 한국가스안전공사, 한

국전력공사 등 관련기관에서는 재난발생사실을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여 자치단체나 119에 의존하고 있으나, 상황전파가 제대로 되지 않아 소관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여도 빨리 대응하지 못하고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김성태)과 함께 각종 재난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제공하는 「재난상황정보 원클릭시스템」을 구축·보급하여 기관 간에 공동협력 및 신속한 현장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정책정보

- 「재난상황정보 원클릭시스템」이 보급되면
 - 재난발생정보와 관련된 주관기관뿐만 아니라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협력기관에서도 재난발생과 동시에 사실을 확인하고 재난발생지점 주위의 위험시설물 등을 즉시 알 수 있어서 효과적인 공동대응이 가능해지고
 - 재난발생 지역 인근의 주요시설물 관리자에게도 재난발생 상황을 바로 알릴 수 있어 사전 대비를 할 수 있게 된다.
- 소방방재청은 금년 말까지「재난상황정보 원클

릭시스템」이외에 재난현장에서도 재난관리자가 재난상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관용 공통시스템인「스마트폰 기반 재난상황전파 앱」을 개발·보급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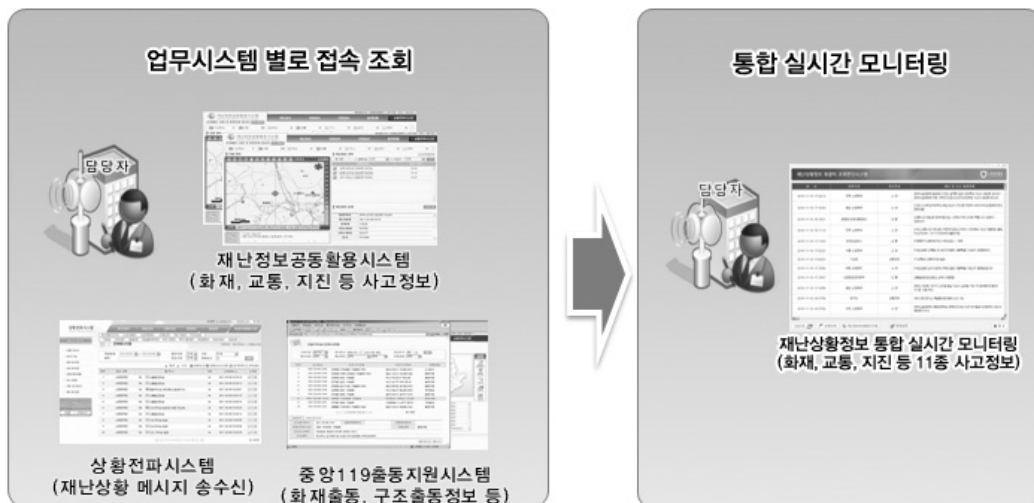
- 국민들이 재난발생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재난 발생상황뿐만 아니라 주요도로 침수 및 교통통제 상황 등도 즉시 확인하고, 재난 종류별로 행동요령을 익혀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모바일 국가재난안전정보센터」를 보급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상황정보 원클릭시스템」주요기능]

- 재난상황정보 실시간 통합모니터링 기능

개별 시스템별로 수집되는 재난상황정보를 실시간으로 단일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표출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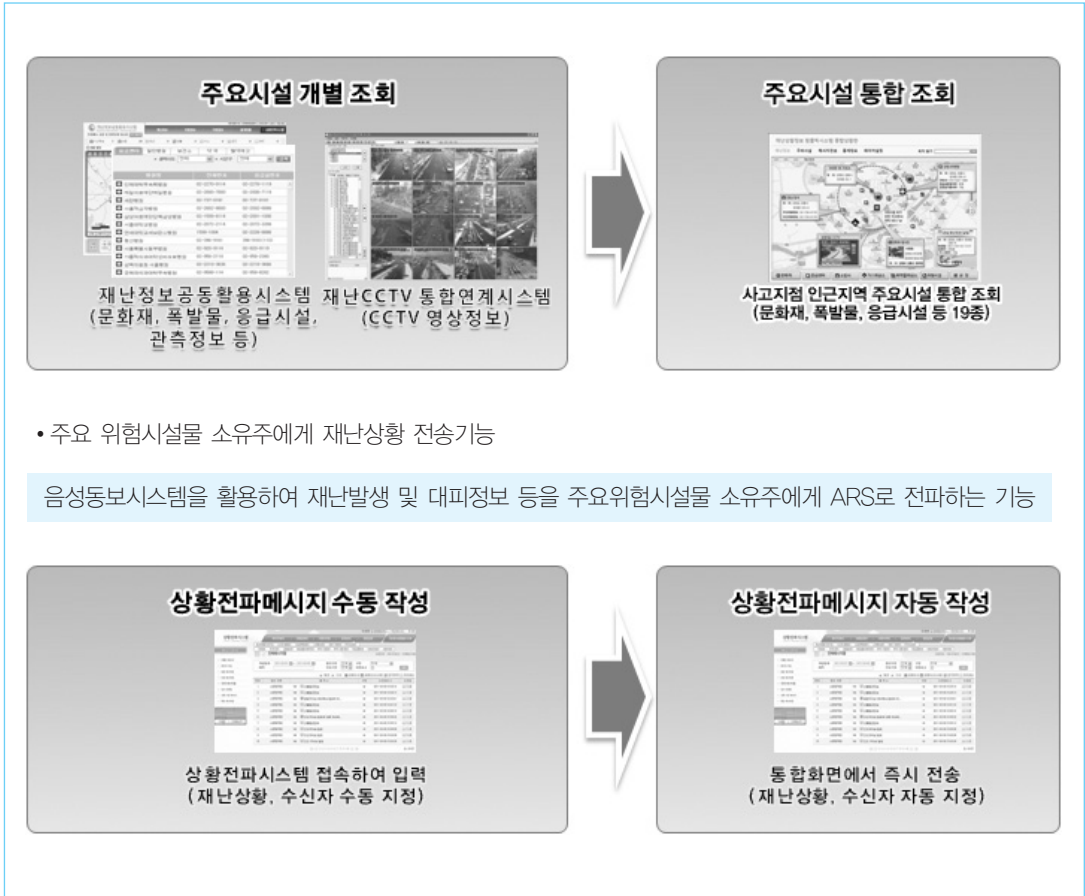
※ 화재발생, 구조정보, 교통사고(국도,고속도로), 방사능누출사고, 가축질병, 해양사고, 지진발생, 산불발생, 전염병발생, 정전발생, 열차사고 등 11종



- 재난발생 지점 일정반경 내에 있는 주요 위험시설 확인기능

재난발생 일정반경 내의 위험시설물의 위치 표시 및 상세정보(위치, 담당자, 연락처 등) 확인 기능

※ 주의시설(문화재 등 6), 대비·대피시설(이재민수용시설 등 5), 관측·감시시설(우량계 등 3), 의료시설(응급센터 등 5) 등 19종





기타
방재정보

소방방재청, 「심리상담 정보센터」홈페이지 새단장

심리상담 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dmhs.go.kr>)

- 최근, 극한 기상과 도시화, 산업화로 재난이 대
형화, 복잡화됨에 따라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어 재난충격 후유
증이 심각한 사회병리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 특히, 올해에 들어서서 구제역, 집중호우, 태
풍을 겪으면서 이로 인한 심리적·정신적 스
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나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심리지원 대책이 절실
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에서는
 - 재난경험자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전국 16
개 시도 심리지원센터를 통해 현장에서 심리상
담 등 지원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 재난심리에 관심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국민
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접속하여 본인 스스로
진단하고 예방 또는 치유 받을 수 있도록
2008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재난피해자 심
리지원 정보센터’를 ‘심리상담 정보센터
(www.dmhs.go.kr)’로 개칭하고 기능도 대
폭 개선하여 9월 1일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
간다고 밝혔다.
- 이번 개편으로
 - ‘심리상담 정보센터’와 시·도 재난심리지원
센터, 전국병원 및 정신보건정보센터와 연계하
여 다양한 관련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 재난경험자들이 심리적 충격정도를 스스로 진
단해 볼 수 있도록 3가지 유형(재난으로 인한
심리충격 자가진단, 풍수해로 인한 심리충격
자가진단, 어린이 심리충격 자가진단)의 프로
그램을 보완하였으며
 - 재난경험자 및 심리지원 센터요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와 재난대
처 게임형 교육자료, 심리지원 활동 매뉴얼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탑재하였다.
 - 이밖에도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재난에
노출된 개인의 심리상태를 단계별로 진단하여
프로그램에 등록된 지역별 상담센터를 찾아
보다 빠른 심리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센터 홈페이지 새 단장 기념으로 심리테스트 참
여자중 5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플로라이
즈 카메라)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 앞으로도 소방방재청에서는
 - ‘심리상담 정보센터’(www.dmhs.go.kr)를
재난경험자들이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완화·극복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며,
 - 아울러 일반인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다양화해 나갈 계획이다.

[심리상담 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dmhs.go.kr)]

심리상담 정보센터 재난경험심리 재난과예방 심리지원센터 참여마당 커뮤니티

재난경험심리센터카페

재난은 예방으로, 안전은 실천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안전한국 실현의 지름길입니다.



이벤트 ZONE 1 2 3 4 5

홈페이지 새단장 오픈 EVENT

대상: 심리테스트 참여자 대상
 상품: 폴라로이드카메라(7만원상당)
 ※오픈 기간 중 5명 추첨

OPEN

재난소식 극복사례 일반자료실 **질의응답**

1 질의합니다... 2011.07.28

사이버 자가진단

해당되는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어린이 심리적 충격척도 자가진단 >

심리지원활동 매뉴얼

바로가기 >

재난심리 매뉴얼 다운받기

나에게 가까운 상담센터 찾아보기



재난으로 인한 심리충격 자가진단 >

풍수해로 인한 심리충격 자가진단 >

증상 및 궁금증대처법 + 더보기

- 재난의 충격을 자기 성장의 기회로
- 재난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 충격으로 인한 심리적 신체적 증상들
- 이러한 신체적 증상들은 병인가요?

예방교육 자료실 + 더보기

불길을잡아라.. 쓰나미(해일).. 안전탈출대작.. 지진대처게임..

홍수구조.. 구조보트.. 방화뱀을잡아.. 화재진압게임..

관련사이트 소방방재청 기상청 국가정보재난센터

센터 새소식 + 더보기

1 센터새소식 테스트.. 2011.07.28

센터카페 이용하기

바로가기 >

방재정보광장



기
타
방
재
정
보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전문가 현지 검토회의 개최

-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익산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전문가 심의를 8월12일(목) 익산시 현장에서 방재연구소와 민간 전문가, 익산시청 및 소방방재청의 관련자 등 총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오전일찍 익산시 현지에 도착한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오전에 2팀으로 나뉘어 목천포천 재해 위험지구를 방문하여 상류지역의 농업용 저수지에 홍수조절 기능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저감 대책을 검토하였으며, 사면재해 위험지구 등을 점검하였다.
 - 또한 도심저지대의 관거정비 및 침투시설, 공원저류시설 등 도시계획 재정비 등과 연계한 저감대책 등을 폭넓게 검토 하였다.
- 오후에는 익산시에서 작성한 ‘익산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서’를 검토하고, 급경사지의 현장조사 및 사면안정해석에 따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저감대책 수립, 산복천 수계의 재해유발요인 제시 등을 보완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 이에 대해 익산시청 고성봉 재난안전과장은 금번에 전문가 검토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충실히 보완하여 제출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 한편 검토 전문위원이며 수자원분야 전문가인 (사)한국물포럼 전병호 부총재는 ‘재해위험요인’을 실제 현장에서 확인하고 검토를 하게 되니 현장을 그대로 반영한 대책 마련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소방방재청은 이번 현지 점검 및 평가결과 지자체의 현실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충실하게 반영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긍정적 평가가 많음에 따라 앞으로 이러한 현지검토회의 개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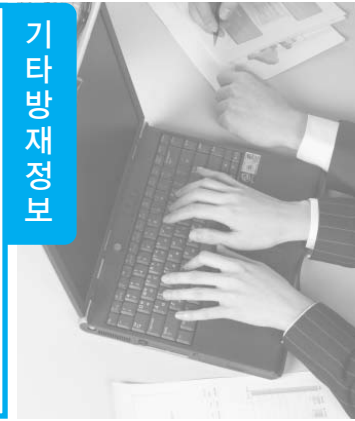
10월 재난종합상황 분석 및 전망

소방방재청, 「10월 재난종합상황 분석 및 전망」발표

〈 주요재난 사례 〉

- 호우 : '06.10월 동해안지방 집중호우로 1명 사망, 699억원 피해
- 강풍 : '05.10월 동해안지방 강풍으로 11명 사망, 84억원 피해
- 산악 : '10.10월 경북 문경 용연리 뒷산 버섯 채취 중 조난으로 2명 사망
- 농기계 : '10.10월 전북 군산 산북동 콤바인 조작미숙으로 전복 1명 사망

기타 방재정보



I. 기상전망

1. 10월 기상전망

기온은 상순과 하순에는 평년(11~19℃)보다 높겠으며 중순에는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상순과 하순에는 평년(32~110mm)보다 적겠고, 중순에는 비슷하겠음

- 상순에는 동서고압대의 영향을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아 고온 현상이 나타나 기온은 평년보다

다 높겠고,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으나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음.

- 중순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나, 일시적인 대륙고기압의 확장으로 쌀쌀한 날씨가 나타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으나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 하순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아 일교차가 크겠고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음.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으나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음.

구분	기온	강수량
10월 상순	평년(14~21℃)보다 높겠음	평년(12~36mm)보다 적겠음
10월 중순	평년(12~20℃)과 비슷하겠음	평년(7~49mm)과 비슷하겠음
10월 하순	평년(9~18℃)보다 높겠음	평년(10~33mm)보다 적겠음

2. 3개월 기상요약

- 기온은 10월에 평년보다 높겠고, 12월에 평년보다 낮겠음.
 - 10월 : 동서고압대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음.
 - 11월 :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

고 건조한 날이 많겠으나,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음.

- 12월 : 차고 건조한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음.

※ 자료출처 : 기상청(2011년 9월23일 발표)

방재정보광장

정책정보

II. 10월 재난관리 전략

1. 자연재난

1.1 자연재난 분석

10월은 강풍·풍랑피해와 너울성 파동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방파제, 갯바위 등에서의 관광객·낚시객 등 안전사고 우려지역에 대한 집중관리 필요

■ 기상상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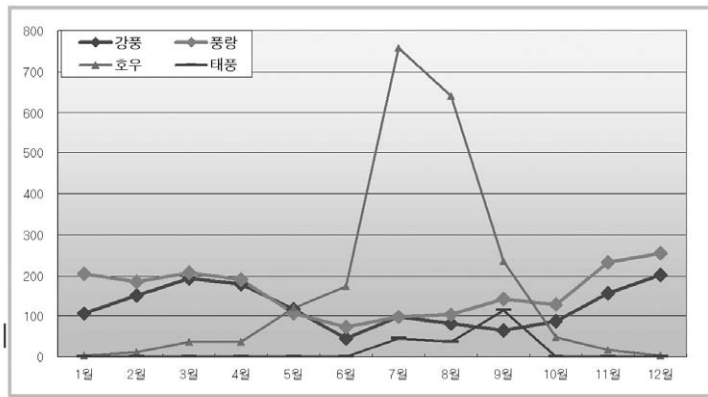
- 최근 5년('06~'10년)간 호우 등 기상특보 발표 현황 분석결과, 강풍·풍랑특보 건수는 6~9월 간 오르내리다 10월부터 상승하여 11~12월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호우특보 건수는 10월부터 대폭 감소하였고, 태풍특보는 발표되지 않았음.

■ 10월 발생 자연재해 분석

- 최근 10년('01~'10년)간 월별 자연재해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 총 133건의 자연재해로 684명의 인명피해와 17조44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 이 중 10월에는 8건의 자연재해로 12명(1.8%)의 인명피해와 1,055억원(0.6%)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급격히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최근 10년간 10월 자연재해 발생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총 8회 중 호우 3회, 강풍 2회, 풍랑 3회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연평균 1명의 인명과 10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고,
 - 이 중 피해가 가장 컸던 자연재해는 '05년 강

【 최근 5년('06 ~'10년)간 기상특보 발표현황 - 기상청 】



【 최근 10년('01~'10년)간 월별 자연재해 발생현황 - 재해연보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월평균
건수	9	10	14	7	2	9	27	23	13	8	2	9	133	11
인명피해(명)	4	0	1	0	0	11	175	306	161	12	0	14	684	57
재산피해(억원)	6,939	1,549	7,701	173	9	2,500	28,565	68,357	47,838	1,055	49	5,705	170,440	14,203

풍 피해로 1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06년 호우로 699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호우 : 3회, 인명피해 1명, 재산피해 928억원
 강풍 : 2회, 인명피해 11명, 재산피해 104억원
 풍랑 : 3건, 인명피해 0명, 재산피해 23억원
 ⇒ 10월은 호우·강풍 등 풍수해로 인명·재산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지역, 강풍으로 인한 비산물발생 우려시설 사전점검에 중점을 둔 예방 활동 필요

〈10월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

- '06.10.22~10.25 호우 및 강풍으로 인한 피해, 부산, 울산, 경기, 강원, 충남, 경북(인명 1명, 재산 699억원)
- 호 우
-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은 날이 많아 호우피해 가능성은 낮아졌으나 남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올 가능성

- 있음.
- 최근 10년('01~'10년)간 10월 호우피해는 총 3회가 발생하여 1명의 인명과 928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10월 중 가장 컷던 호우 피해사례로는
 - '06.10.22~10.25일 기간동안 동해상에서 따뜻하고 습한 저기압이 동해북부해상의 차고 습한 공기와 합류되면서 동해안지방에 많은 강우가 내렸으며, 한기를 동반한 저기압이 동해상에서 크게 발달하여 강한 바람을 동반한 너울성파도가 강원, 경북 해안지역에 발생하여 1명의 인명과 699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함.
 - ※ 누적강수량(일) 강릉 317.5mm / 순간풍속 63.7%(관측이후 전국 최고값)
- 지난 여름(6~8월) 집중호우로 전국 각지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10월 돌발성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에도 대비가 필요함.

【 최근 10년('01~'10년)간 월별 호우피해 발생현황 - 재해연보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월평균
건수			1	1		8	22	19	6	3			60	5
인명피해(명)						9	112	52	2	1			176	15
재산피해(억원)			25	27		2,391	9,775	14,326	822	928			28,294	2,358

【 최근 10년('01~'10년)간 10월중 호우피해 발생현황 - 재해연보 】

기 간	원인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억원)	주요 피해지역
합 계	(3회)	1	928	
'01.10.09~10.12	호우	-	115	경기, 강원, 전남, 경북
'02.10.18~10.20	호우	-	114	강원
'06.10.22~10.25	호우	1	699	부산, 울산, 경기, 강원, 충남, 경북

방재정보광장

정책정보

⇒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 등에 대비한 위험지역 안전 점검·정비, 집중호우 시 대처요령 홍보 등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 강화 필요

■ 강풍·풍랑

- 최근 10년('01~'10년)간 10월 강풍·풍랑피해는 총 5회가 발생하여 11명의 인명과 12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최근 10년간 10월 중 강풍피해는 총 2회가 발생하여 11명의 인명과 104억원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이 중 가장 컷던 피해사례로는 - '05.10.21~24일 기간동안 동해안지역에 너울성 파도가 발생하여 11명의 인명과 어항·어

구 파손 등 84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함.

※ 최대풍속(22일) 올릉도 16.2% / 최대순간풍속 올릉도 29.8%

- 풍랑피해는 총 3회가 발생하여 2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이 중 가장 컷던 풍랑 피해 사례는 - '10.10.25~27일 기간동안 서해안지역에 강풍과 풍랑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3~6m의 파고가 일어 선박 파손 등 17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함.
 - 강풍과 풍랑에 의한 해안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예상치 못한 너울성 파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 강풍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 대비 태세 구축,

【 최근 10년('01~'10년)간 월별 강풍·풍랑피해 발생현황 - 재해연보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월평균
건수	2	3	7	6	2		1			5	2	2	30	3
인명피해(명)			1							11			12	1
재산피해(억원)	110	120	411	146	9		42			127	49	72	1,086	91

【 최근 10년('01~'10년)간 10월중 강풍피해 발생현황 - 재해연보 】

기간	원인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억원)	주요 피해지역
합계	(2회)	11	104	
'05.10.21~10.24	강풍	11	84	울산, 강원, 경남
'09.10.16~10.18	강풍	-	20	인천, 경기, 충남, 전남북

【 최근 10년('01~'10년)간 월별 풍랑피해 발생현황 - 재해연보 】

기간	원인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억원)	주요 피해지역
합계	(3회)	0	23	
'09.10.07~10.10	풍랑	-	2	부산, 울산, 경기, 강원, 경남북
'09.10.18~10.20	풍랑	-	4	대전, 충남
'10.10.25~10.27	풍랑	-	17	인천, 충남, 전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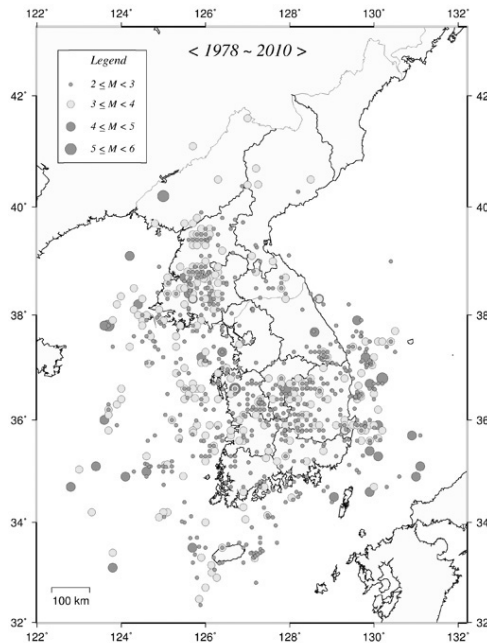
지붕(기왓장) 등 비산물 사전점검 · 정비, 해안가 방파제, 갯바위 등 출입 통제 강화 필요

■ 지진

- '금년 3월 발생한 일본 혼슈 센다이 지진 등 세계 각지에서 지진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 및 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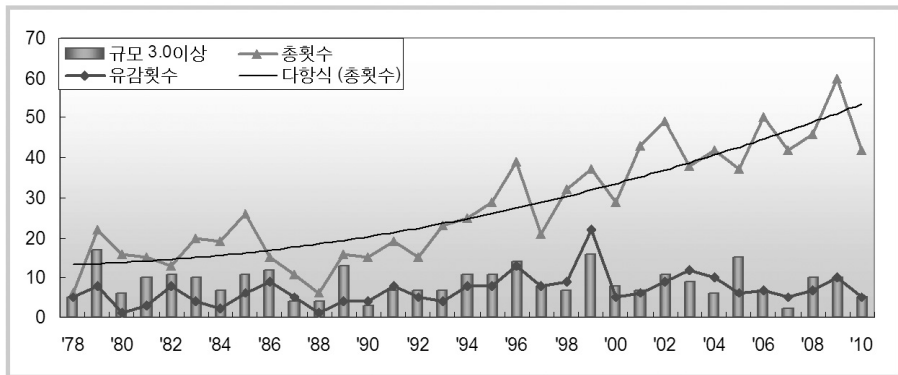
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음.

- '78년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현황을 분석한 결과, 규모 3.0이상 지진 발생은 상승폭이 크지 않았으나 전체 발생회수는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음.



【 진앙분포도 - 기상청 】

【 국내 지진발생 추이('78~'10년) - 기상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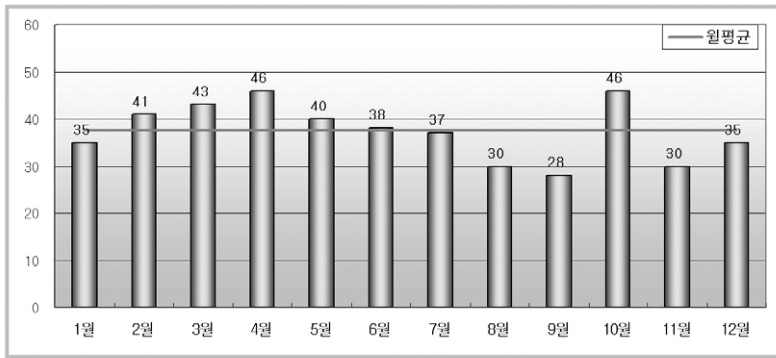


정책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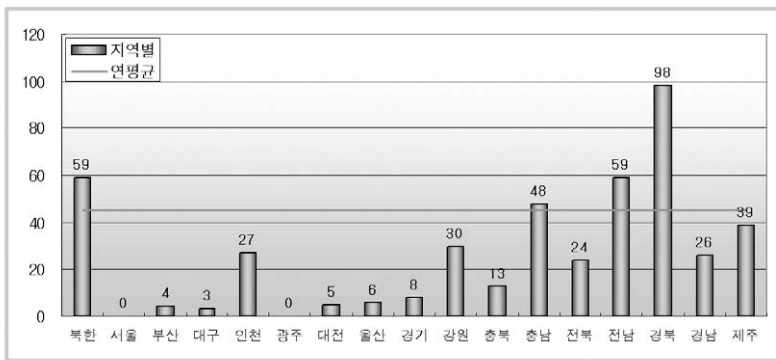
【 최근 10년('01~'10년)간 월별 지진 발생현황 - 기상청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발생횟수	35	41	43	46	40	38	37	30	28	46	30	35	449
연평균	4	4	4	5	4	4	4	3	3	5	3	4	47

【 최근 10년('01~'10년)간 월별 지진 발생현황 - 기상청 】



【 최근 10년('01~'10년)간 지역별 지진 발생현황 - 기상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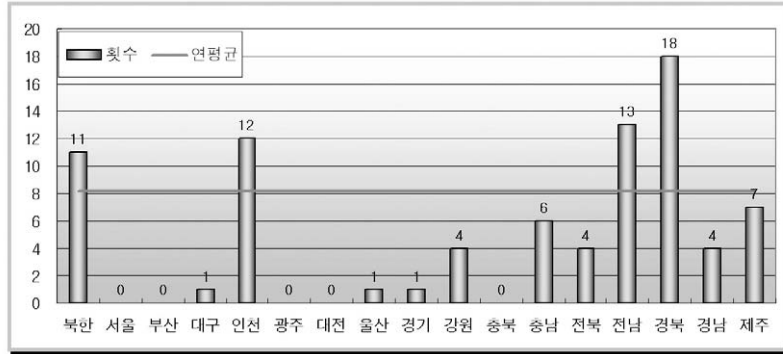
- 최근 10년('01~'10년)간 국내지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총 449건의 지진이 발생하여 10월과 4월에 가장 많은 46건(11.0%)이 발생함.
- 지역별로는 경북 98건(19.3%)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전남 59건(11.8%), 충남 48건(9.6%), 제주 39건(7.8%)순으로 발생하였음.
- 이 중 규모 3.0이상 국내지진은 82건이 발생하였고 지역별로는 경북 18건(내륙 6, 해역 12), 전남 13건(내륙 2, 해역 11), 인천 12건(해역 12),

제주 7건(해역 7) 순으로 발생하였음.

- 지진은 다른 재난과 달리 예측이 불가능하고 피해양상이 폭발, 붕괴, 화재 등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신속하고, 다양한 대응 및 수습대책이 필요함.

⇒ 지진 및 지진해일 대비 예·경보시설 점검, 상시 운용가능 상태 유지, 지진해일 발생시 대피장소 및 국민행동요령 교육·홍보 강화

【 최근 10년('01~'10년)간 규모 3.0이상 지진 발생현황 - 기상청 】



【 참고자료 - 국내발생 지진 최고기록 - 기상청 】

순위	규모 (M)	발생 연월일	진앙(Epicenter)		
			위도(°N)	경도(°E)	발생 지역
1	5.3	'80.01.08	40.2	125	평북 서부 의주-삭주-귀성 지역
2	5.2	'04.05.29	36.8	130.2	경북 울진 동쪽 약 80km 해역
3	5.2	'78.09.16	36.6	127.9	충북 속리산 부근지역
4	5	'03.03.30	37.8	123.7	인천 백령도 서남서쪽 약 80km 해역
5	5	'78.10.07	36.6	126.7	충남 홍성읍 지역
6	4.9	'03.03.23	35	124.6	전남 홍도 북서쪽 약 50km 해역
7	4.9	'94.07.26	34.9	124.1	전남 홍도 서북서쪽 약 100km 해역
8	4.8	'07.01.20	37.68	128.59	강원 평창 도암면-진부면 경계지역
9	4.8	'81.04.15	35.9	130.1	경북 포항 동쪽 약 65km 해역
10	4.7	'82.03.01	37.2	129.8	경북 울진 북동쪽 약 45km 해역

2. 중점추진사항

강풍 · 풍랑에 대비 시설물 점검 및 해안가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지진 · 지진해일 대비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 등 실시

■ 국지성 집중호우 대비 예방대책 추진

-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등 취약시설 · 지역 중점 반복 점검
- 낙석, 산사태 위험지역 경고판 설치상태 점검 · 정비 및 사고예방 홍보

- 금년 수해지역 피해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추진

■ 강풍 · 풍랑대비, 한단계 빠른 대응계획 수립 추진

- 해안가 저지대, 방파제 등의 인명피해 및 항구 내 선박 등 피해 예방대책 마련
- 비닐하우스, 수산증 · 양식시설 피해 대비 예방활동 등 대처계획 수립 시행
- 풍랑특보 발령시 선박출항 및 낚시객, 어민 등 외출자제 홍보 강화

정책정보

- 강풍·풍랑 국민행동 요령 적극홍보

■ **너울성 파도 대비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 수립 시행**

- 해안가 인명피해 위험구역 정기 예찰활동 실시
- 위험지역·관광지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안전시설 설치
- 위험지역에 대한 현장책임자 지정·운영 및 위험표지판 설치
- 방파제, 갯바위 등 위험구역에 대한 낚시객 등 출입통제
- 해안가 인명피해 우려지역 '안전관리 통제원' 배치·운영
-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대국민 홍보 전개

■ **지진방재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 과거 지진해일 위험지역 특별 관리 및 수시 확인
 - ※ 강원 속초 임원항, 정라항 등
- 지진해일 예·경보시설 점검 및 상시 운용가능 상태 유지
- 지진·지진해일 대비 대국민 행동요령 교육·홍보 등

2. 인적재난

2.1 재난여건

가을철 각종 축제·행사 등으로 행락인파가 증가하고 본격적인 단풍철이 시작되는 시기로 유명산을 찾는 등산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생활안전사고 증가가 예상된다.

■ **지역별로 가을철 축제가 본격적으로 열려 야외 행사 등으로 많은 인파 운집**

- ※ 백제문화제(10.1~10.9), 진주 남강 유등축제(10.1~10.12), 부산 국제영화제(10.6~10.14), 증평 인삼골축제(10.7~10.9), 인천 소래포구 축제(10.13~16), 강경 발효젓갈축제(10.19~10.23), 지리산 피아골단풍축제(10.29~10.30) 등

■ **가을 단풍철을 맞아 가족동반, 단체, 모임 등 산행 인구 증가**

- 금년 단풍은 전국적으로 작년보다 1~5일 정도 늦을 것으로 예상되며,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는 설악산(중부지방)에서 10.18일경, 내장산(남부지방)에서 11.7일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설악산	지리산	오대산	월악산	속리산	치악산	계룡산	북한산	한라산	내장산
첫단풍	10.03	10.13	10.06	10.16	10.17	10.13	10.18	10.19	10.17	10.26
절정기	10.18	10.23	10.18	10.26	10.27	10.23	10.27	10.28	10.28	11.07

【 최근 3년('08~'10년)간 인적재난 발생현황 - 재난연감 】

구분	합계	화재	산불	붕괴	폭발	도로교통	환경오염	유도선	해난	기타
건수비율	9.00%	7.70%	4.30%	7.10%	8.80%	9.30%	7.20%	25%	9.40%	8.80%
총 건수	850,075	138,812	1,241	539	147	674,690	250	4	4,315	30,077
10월건수	76,850	10,745	53	38	13	62,941	18	1	406	2,635

〈 10월 발생 주요 인적재난 사례 〉

- '10.10.01 부산 해운대구 우동 수신클드스위트 화재(재산 577억)
- '10.10.18 제주 차귀도 북서 해상, 우일호 전복 침몰(사망 3명, 부상 5명)
- '10.10.09 경기 양주시 남면 신축공사장, 콘크리트 타설중 거푸집 붕괴(부상 10명)
- '10.10.07 경북 문경시 문경을 용연리 뒷산, 버섯채취 중 조난사고(사망 2명)
- '09.10.12 경북 울릉도 부동 해상, 기상불량으로 피항 중 침몰(실종 5명)
- '08.10.18 서울 도봉구 장동 주거용 컨테이너, 방화(사망 4명)
- '06.10.03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추돌 교통사고(사망 11명, 부상 57명)
- '05.10.03 경북 상주 상주자전거축제, 행사 중 상주시민운동장 안전사고(사망 11명)
- '94.10.21 서울 성동구 성수대교 붕괴(사망 32명, 부상 17명)
- '93.10.10 전북 위도 앞바다, 정기 여객선 서해훼리호 침몰(사망 292명)

【 최근 3년('08~'10년)간 국립공원 안전사고 현황 - 국립공원관리공단 】

연도별	인명피해			비고
	계	사망	부상 등	
계	1,983	83	1,900	
2008년	742	32	710	
2009년	661	21	640	
2010년	580	30	550	

※ 국립공원중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태안해안, 변산반도, 한라산 안전사고 발생건 미포함.

- 단체관광 등 행락객 이동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위험 증대
- 본격적인 추수기가 시작되면서 경운기, 트랙터, 콤팩트 등 농기계 사용 확대
 - 농작업의 기계화로 농기계 사용이 빈번해 지고, 기술력의 발달로 새로운 농기계가 지속적인 보급으로 인한 농기계 안전사고 증가

2.2 인적재난 분석

가을철 단풍 절정기를 맞아 관광객 및 등산객의 증가로 인한 산악 안전사고 및 본격적인 추수기를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 증가가 예상됨.

- 10월중 인적재난 발생현황
 - 최근 3년('08~'10년)간 총 850,075건의 인적

재난이 발생하였고 10월에는 76,850건(9.0%)이 발생하였음.

- 재난유형별 총 건수 중 10월에 발생한 비율을 비교한 결과, 유도선(25%), 해난(9.4%), 도로교통(9.3%), 폭발(8.8%), 화재(7.7%), 환경오염(7.2%), 붕괴(7.1%), 산불(4.3%) 순으로 발생비율이 높게 나타남.
- 그 중 붕괴사고는 발생건수 대비 인명 및 재산 피해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사고 발생 예방활동이 필요함.

■ 산악사고

- 가을철 단풍 절정기를 맞아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과 버섯 등 산림 부산물 채취행위 증가로 인한 산악 안전사고가 증가함.
 - 최근 3년('08~'10년)간 국립공원에서 총

정책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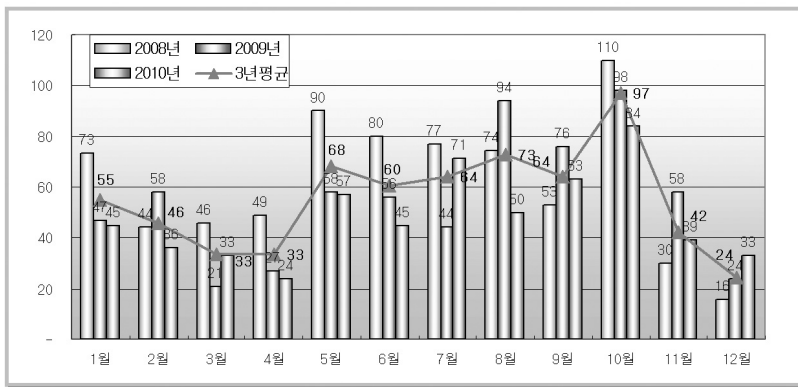
1,983명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사망 83명, 부상 등 1,90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10년 인명피해 건수는 '09년 대비 12.3%가 감소하였으나 사망자수는 42.9%가 증가하였음.

- 최근 3년간 발생한 국립공원 안전사고 중 10월에 292명(14.7%)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서객이 많은 8월에 218명(11.0%), 봄철 산행시기인 5월에 205명(10.3%)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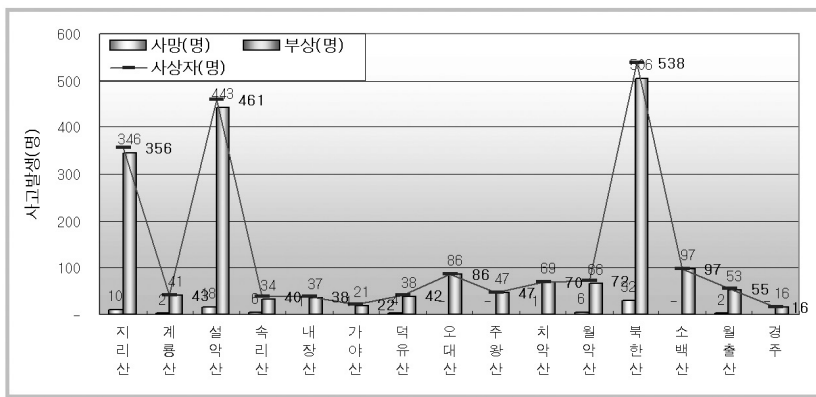
- 최근 3년간 발생한 안전사고는 북한산이 538명(27.1%)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으로 설악산 461명(23.2%), 지리산 356명(18.0%) 순으로 나타남.

- 가을 단풍을 즐기려는 사람들과 버섯 등 산림 부산물 채취를 위해 산행하는 사람들로 수도권 인근에 위치한 북한산과 설악산, 지리산 등 유명산에 등산객이 몰려 산악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져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안전산행요령 홍보가 필요함.

【 최근 3년('08~'10)간 국립공원 월별 안전사고 현황 - 국립공원관리공단 】



【 최근 3년('08~'10)간 국립공원별 안전사고 현황 - 국립공원관리공단 】



※ 국립공원 연평균('08~'10) 탐방객수 : 북한산 8,709천명, 설악산 3,513천명, 지리산 2,838천명

최근 산악안전사고 사례

- '10.10.23 : 경기 군포시 수리산, 호흡곤란, 현기증(부상 1명)
- '10.10.18 : 경기 양평군 옥천면 유명산 정상, 등반중 심한 복통(부상 1명)
- '10.10.11 : 경남 의령군 의령읍 하리, 산속에서 의식을 잃고 실신(부상 1명)
- '10.10.09 : 전남 구례군 지리산 노고단, 조난(부상 1명)
- '10.10.07 : 경북 문경시 문경읍 용연리 뒷산, 버섯채취 중 조난사고(사망 2명)
- '10.10.03 : 경기 용인시 수암봉 정상, 발목통증(부상 1명)
- '10.10.02 : 경남 의령군 가례면, 마을뒷산에서 벌에 쏘임(사망 1명)

⇒ 수도권 인근 유명산 등 안전사고 다발지역 등산로 위험요인 제거 및 소방력을 활용한 등산목지킴이 활동을 강화하고 안전산행요령 홍보 등 사고예방활동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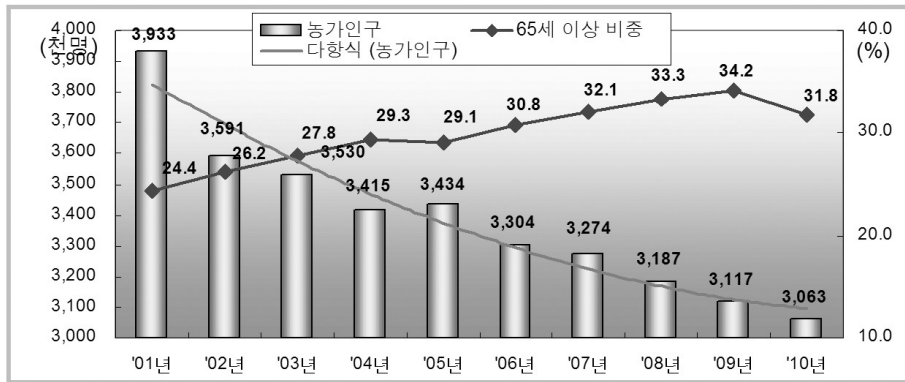
■ 농기계사고

- 농가인구 중 65세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고, 농촌인력 부족 및 고령화로 경운기와 같은 소형·보행형 기종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트랙터, 콤팩트 등 대형·승용형 기종은 증가 추세에 있음.
- 최근 3년('08~'10년)간 총 1,318건의 농기계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828명의 인명피해(사망·실종 181명, 부상 647명)가 발생하였음.

- 이 중 10월에 224건(17.0%)이 발생하였고 모내기철인 5월에 173건(13.1%), 9월 133건(10.1%), 6월 130건(9.9%) 순으로 발생하여, 추수기인 10월에 가장 많은 사고발생 빈도를 기록하였음.
- 농기계사고 연령대를 분석해 보면, 60대가 29.3%인 243명(사망 42, 부상 201)으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27.4%인 227명(사망 50, 부상 177), 50대가 19.7%인 163명(사망 29, 부상 81)순으로 나타남.

【농가인구 및 65세이상 인구 현황 - 통계청】



방재정보광장

정책정보

【 농업기계 보유현황 - 통계청(출처 : 농림수산물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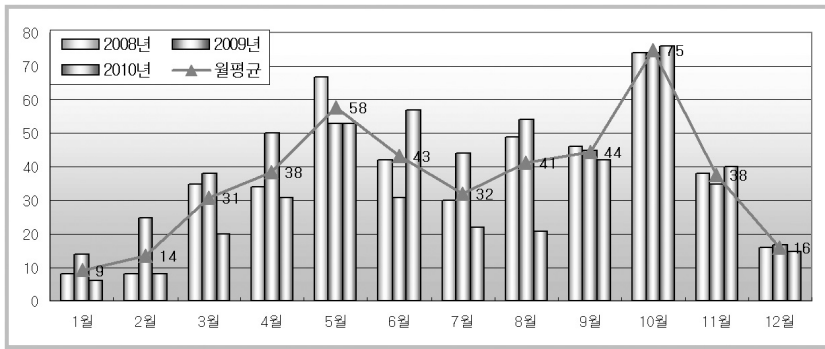
[단위 : 천대]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합계
보유대수	1,555	1,526	1,492	1,474	1,467	1,451	1,414	1,389	1,337	1,320	14,425
트랙터	201	206	212	220	228	237	244	254	259	265	2,326
콤바인	88	87	87	87	87	86	85	85	80	81	853
이앙기	343	341	335	334	332	325	314	310	283	276	3,193
경운기	923	892	858	833	820	803	771	740	715	698	8,0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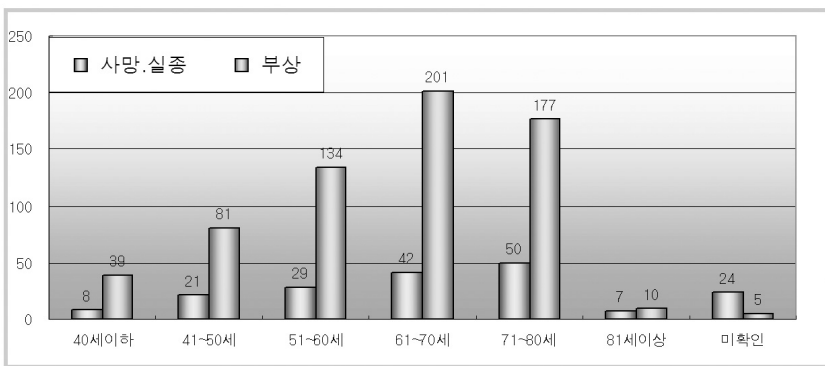
【 최근 3년('08~'10년)간 농기계사고 발생현황 - 재난관리정보DB센터 】

연도별	발생건수	인명피해				비고
		계	사망	실종	부상	
계	1,318	828	159	22	647	
2008년	447	314	60	9	245	
2009년	480	320	61	13	246	
2010년	391	194	38	0	156	

【 최근 3년('08~'10년)간 월별 농기계사고 발생현황 - 재난관리정보DB센터 】



【 최근 3년('08~'10년)간 농기계사고 인명피해 현황 - 재난관리정보DB센터 】



최근 농기계 안전사고 사례

- '10.10.30 : 경남 진주시 대곡면, 경운기 전복사고(부상 1명)
- '10.10.28 : 경남 의령군 부림면, 안전수칙 불이행(부상 1명)
- '10.10.19 : 전남 고흥군 두원면, 트랙터 전복(사망 1명)
- '10.10.17 : 경북 안동시 북후면, 경운기 운전미숙(사망 1명)
- '10.10.14 : 부산 강서구 대저동, 운전부주의로 철제파이프에 깔림(사망 1명)
- '10.10.09 : 전북 군산시 산북동, 콤바인 조작미숙으로 전복(사망 1명)

⇒ 농기계 안전점검 · 정비,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화장치 부착, 예방수칙 홍보 등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 필요

2. 3 중점추진사항

가을철 각종 지역축제, 단풍철을 맞아 행락객 증가, 본격적인 수확기 농기계 사용 빈도 증가에 따른 생활주변 안전사고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필요.

■ 산악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

- 낙석 제거 등 등산로 위험요인 정비 및 안내 표지판 정비
- 우회 등산로 및 안전시설 점검 · 확충
- 전국 유명산, 국립공원 입구, 안전사고 다발지역 등에서 '안전 산행요령' 홍보
- 무리한 암벽, 암릉 등반에 대한 통제 강화
- 기상특보 발효 등 악천 후 시 입산 통제 등

■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 철저

- 농기계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노후 농기계 무료정비 지원
-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수칙 홍보 및 등화장치 부착상태 단속
- 농기계별 이용 안전수칙 작성 배포

■ 축제·행사, 등산인원 증가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 지역축제(공연 등)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축제

현장 안전점검 강화

- 안전취약지역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정밀점검, 지역주민과 이용자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
- 행락철 유도선 및 유원시설업체의 유기기구 안전관리실태 주기적 점검 및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의식 고취

■ 단체관광 · 수확여행 성수기 대형 관광버스 안전사고 예방

-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차량 정기점검 및 안전운전 홍보
- 사고 다발지역에 경고표지판 추가설치 및 훼손시설 재점검
- 음주운전 · 졸음운전 · 과속 금지, 안전거리 확보, 내리막길 엔진브레이크 사용 등 안전운행 홍보활동 강화

정책정보

Ⅲ. 재난관리 정보마당

폭우 시 안전행동 요령

- ☞ TV 등 기상 방송을 예의 주시해 주시고,
- ☞ 우선 집이나 축대 등이 안전한지 살펴보고 막힌 배수로 등을 정비합니다.
- ☞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고립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대피준비를 하신 후 행정 관서의 안내에 따라 안전지대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 ☞ 등산객, 야영객들께서는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물이 불어난 계곡이나 하천을 무리하게 건너지 마십시오.
- ☞ 어린이나 노약자는 외출을 삼가시고 침수도로나 잠수교 오래된 축대, 담장 등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한 길로 돌아갑시다.
- ☞ 갑자기 침수나 고립되었을 시는 건물 옥상이나

높은 지대로 올라가 구조를 요청하여야 하고
 ☞ 침수가 되었던 집에 들어가실 때는 먼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전기시설은 한전 등에 안전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강풍 대비 행동요령

■ 평상시

- 노후 간판을 정비하고, 지붕, 옥상 등에 바람에 날릴 수 있는 물건을 치운다.
- 만일에 대비하여 대피장소를 정하고 대피경로를 실제 도보로 확인해 둔다.
- 손전등, 라디오, 가정상비약 등 대피준비물을 준비해 둔다.

■ 강풍 주의보·경보가 예보된 경우

- TV, 라디오 등을 통해 강풍정보를 수시로 확인한다.

【참고자료 - 호우 시 시간당 강우량과 벌어지는 상황】

강우량 (mm/hr)	사람이 받는 느낌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실외 상황	차에 있을 때	재해발생 상황
10~20	세계 내리는 비	걸을 때 바지 젖음	지면에 물웅덩이 생성		오래 지속되면 주의 필요
20~30	장대비라 불림	우산을 쓰고 있어도 옷이 젖음		고속 주행 시 바퀴와 노면 사이에 수막이 생기고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음	와이프를 빨리하여도 잘 보이지 않음
30~50	물통으로 붓는 듯 함		우산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함	도로가 강과 같이 됨	차량운전 위험
50~80	폭포와 같이 내리며 쿵쿵 소리가 남	가슴이 답답한 압박감이 있고, 공포를 느낌	물보라가 일어나 도로면이 새하얗게 되고 시야가 나빠짐	차량운전 위험	도시에서는 지하실이나 지하상가에 빗물이 흘러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재난 발생
80이상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높음				

- 가능하면 외출을 자제하고 특히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는 외출을 금지한다.
- 가옥 내 · 외의 전기수리를 하지 않는다.
- 입간판, 창가의 화분 등을 제거한다.
- 지붕위 등 지상보다 높은 곳에서는 가능한 작업을 하지 않는다.
- 외부에 있을 때는 신속히 건물안으로 대피하고, 나무 밑으로는 피하지 않는다.
- 출입문을 굳게 닫고,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커튼, 블라인드 등을 치고 창문에서 멀리 떨어진 화장실, 골방 등으로 피한다.
- 자동차를 타고 갈 때에는 속도를 줄이고 방음벽 아래로 대피하지 않는다.
- 놀이공원, 유원지 등의 놀이시설, 공사장의 크레인, 리프트 등은 즉시 운영을 중지하고 대피한다.
- 전주, 송전철탑 주변에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 낡은 집이나, 위험담당 등에 접근하지 않는다.
- 공사장에서는 안전장비를 점검하고 임시시설, 낙하의 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버섯재배시설 등 농림시설에 대하여는 결박 및 보강조치를 취한다.

풍랑 대비 행동요령

■ 평상시

- 과거의 재해기록을 파악하고, 풍랑 발생시 어떠한 상황이 예상되는지에 대하여 파악해 둔다.
- 만일에 대비하여 대피장소를 정하고 대피경로를 실제 도보로 확인해 둔다.
- 손전등, 라디오, 가정상비약 등 대피준비물을 준비해 둔다.

풍랑주의보가 예보된 경우

■ 해안가에서

- TV, 라디오 등을 통해 풍랑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관공서의 재난 예 · 경보를 청취한다.
-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는 외출을 자제하며 특히 해안가에 접근하지 않는다.
- 해안가의 낚시객, 야영객, 행락객 등은 인근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 해안가 위험축대 등 시설물은 사전에 철거하거나 접근을 하지 않는다.
- 높은 파도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방파제, 방조제 등에 가지 않는다.

■ 해상에서

- 항해 중 또는 조업어선은 인근 선박이나 관계 기관(어업무선국 등)에 연락하고 대피를 준비한다.
- 어망의 부설을 중지하고 철거조치를 취한다.
- 항내 정박선박은 충돌, 침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 수산시설

- 수산 증 · 양식시설을 고정하고 지지대로 보강하여 높은 파도와 강풍에 유실되지 않도록 한다.
- 이동 가능한 양식사재 · 해상작업대 등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 조치한다.
- 항 · 포구 부두 및 어선에 적재된 어구는 육지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 항만시설

- 각종 하역장비별 피해예방활동을 시행한다.
- 크레인 전도방지용 장비 등 안전장치를 점검한다.
- 항만공사장의 공사용 장비, 인원은 안전지대로 대피한다.

정책정보

풍랑경보가 예보된 경우

■ **해안가에서**

- TV, 라디오 등을 통해 풍랑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관공서의 재난 예·경보를 청취한다.
-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는 외출을 자제하며 특히 해안가에 접근하지 않는다.
- 해안가의 낚시객, 야영객, 행락객 등은 인근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 해안가 위험축대 등 시설물은 사전에 철거하거나 접근을 하지 않는다.
- 높은 파도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방파제, 방조제 등에 가지 않는다.
- 해안가 주택, 영업점에서는 발화성, 유독성의 위험한 가재도구를 이동시키고,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해안도로는 유실 등이 예상되므로 통행을 자제한다.
- 피난 권유나 방송이 없을 시에도 위험을 느끼게 되면 스스로 대피한다.

■ **해상에서**

- 항해 중 또는 조업어선은 인근 선박이나 관계기관(어업무선국 등)에 연락하고 대피를 준비한다.
- 어망의 부설을 중지하고 철거조치를 취한다.
- 항내 정박선박은 충돌, 침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 소형어선은 안전한 육지로 인양하고 결박조치를 취한다.

■ **수산시설**

- 수산 증·양식시설을 고정하고 지지대로 보강하여 높은 파도와 강풍에 유실되지 않도록 한다.
- 이동 가능한 양식자재·해상작업대 등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 조치한다.

- 항·포구 부두 및 어선에 적재된 어구는 육지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 인양 가능한 시설물은 신속히 인양하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 취·배수시설, 비닐하우스, 비상발전기 상태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수산생물의 먹이량을 조절하고 사육밀도를 낮춘다.
- 양식어류 도피방지를 위한 보호망을 보강 설치한다.

■ **항만시설**

- 각종 하역장비별 피해예방활동을 시행한다.
- 크레인 전도방지용 장비 등 안전장치를 점검한다.
- 임항창고, 야적장, 조명시설, 급수시설 등을 고박 및 보강한다.
- 컨테이너, 원목, 기타 적재화물 등은 풍랑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동 또는 결박한다.
- 항만공사장의 공사용 장비, 인원은 안전지대로 대피한다.
- 항만 공사중인 현장은 피복석, 테트라포트 등 보강자재를 활용하여 보강조치를 취한다.

산행시 행동요령(산에 오를 때)

-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하여 해지기 한두 시간 전에 마친다.
- 하루 8시간을 산행하고, 체력의 30%는 비축한다.
- 일행 중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산행한다.
- 될 수 있으면 30킬로그램 이상의 짐을 지지 않는다.
- 배낭에는 기상이변 등을 대비 랜턴, 우의, 휴대전화(예비 축전지), 상비약품을 준비하고 손에는 될 수 있으면 물건을 들지 않는다.

- 등산화는 발에 잘 맞고 통기성과 방수성이 좋은 것을 신는다.
- 산행 중에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자주 섭취한다.
- 산에서는 아는 길도 자주 지도를 보고 확인한다.
-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아는 위치까지 되돌아가서 다시 확인한다.
- 등반로 외의 산행을 삼가고, 길을 잃었을 때에는 계곡을 피하여 능선으로 올라간다.
- 등산화 바닥 전체로 지면을 밟고 안전하게 걷는다.
- 보폭을 너무 넓게 하지 말고 항상 일정한 속도로 걷는다.
- 발 디딜 곳을 잘 살펴 천천히 걷는다.
- 처음 몇 차례는 15~20분 정도 걷고 5분간 휴식하고, 차츰 30분 정도 걷고 5~10분간 휴식한다. 다음 산행에 적응이 되면 1시간 정도 걷고 10분간씩 휴식하는 것이 좋다.
- 산행 시에는 수시로 지형과 지도를 대조하여 현재 위치를 소방서에서 설치한 위치판 고유번호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내려갈 때는 자세를 낮추고 발아래를 잘 살펴 안전하게 디딘다.
- 썩은 나뭇가지 풀, 불안정한 바위를 손잡이로 사용하지 않는다.
- 급경사 등 위험한 곳에서는 보조 자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산악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 위급 상황 시 행동 요령(3C)

- 1단계 : 위급상황을 인식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하는 것(Check)
- 2단계 : 도움을 요청하는 것(Call)
- 3단계 : 응급의료기관에 인계할 때까지 적절한 처치를 하는 것(Care)

■ 구조 요청시 꼭 알려야 할 정보

- 응급 상황이 발생한 정확한 장소
-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 부상자의 상태 정도
- 전화 거는 사람의 이름, 연락처
-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쳤는지
- 응급처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부상자 조사와 응급처치 요령

- ① 의식확인 ② 호흡확인 ③ 맥박확인
- ④ 출혈확인 ⑤ 얼굴색 ⑥ 체온 · 피부상태 확인
- ⑦ 골절확인 ⑧ 구토 등 주변상황 확인
- ⑨ 응급처치 기도개방 구조호흡 심폐소생술 충격 예방처치 지혈 상처처치 · 골절 처치

산악 안전사고 예방 10대 수칙

1. 산행 전에 산행 코스, 난이도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는다.
2. 출입금지구역(국립공원특별보호구, 셋길 등)은 출입하지 않는다.
3. 기상특보 때는 산행을 금하고, 이동 중인 탐방객은 빨리 하산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4. 낙뢰 예보가 있을 때 산행을 삼간다.
5. 자신의 체력을 고려하여 산행 계획을 수립한다.(절대 무리한 산행을 하지 않는다)
6. 충분한 경험과 장비를 갖추지 않은 자는 암릉 · 암벽 등반을 하지 않는다.
7. 폭우로 수량이 불어난 계곡은 무리하게 건너지 않는다.
8. 산행 전 · 후 스트레칭으로 충분히 몸을 푼다.
9. 계절별로 장비와 복장을 갖춘다.
10. 될 수 있으면 단독 산행을 피한다.

정책정보

농기계 안전관리 요령

■ 공통사항

- 농기계 보관창고는 항상 깨끗하게 정돈하자



- * 출입구의 폭, 높이는 여유있게 합시다.
- * 내부는 충분한 밝기와 환기가 되도록 합시다.
- * 농기계 및 공구는 정해진 장소에 둡시다.
- * 어린이가 출입하지 않도록 자물쇠를 설치합시다.

- 농작업에 적합한 복장과 보호구를 착용하자



- * 헐렁하거나 소매가 긴 옷은 입지 맙시다.
- * 미끄럼 방지 처리된 안전화를 착용합시다.
- * 긴 머리카락은 모자속에 넣거나 묶읍시다.
- * 보석류는 빼놓고 작업에 임합시다.

- 농작업 전·후에는 반드시 점검정비를 하자



- * 점검·정비시에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합시다.
- * 이상 발견시에는 정비할 때까지 사용하지 맙시다.
- * 정기교환 부품은 시기에 맞추어 교환합시다.
- * 안전장치는 제 위치에 부착하고 떼어내지 맙시다.

- 논·밭 출입은 안전하게 하자



- * 출입로는 완만한 경사와 적절한 폭을 유지합시다.
- * 이동시에는 속도를 낮추고, 후방 작업기가 무거운 경우 앞쪽에 밸런스웨이트를 장착합시다.
- * 논둑을 넘을 때는 직각 방향으로 진행합시다.

• 동승자를 태우지 말자!



- * 동승자는 운전자의 시야 또는 레버조작을 방해하여 사고를 유발시킨다는 것을 명심합니다.
- * 동승자가 있을 경우 급정지·급회전시에 밖으로 튕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합니다.

• 음주운전은 절대 않는다!



- *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파괴시키는 사고의 주범임을 명심합니다.
- * 음주운전은 침착성과 판단력을 저하시키고 위급상황에서 신속한 반응을 어렵게 하여 대형사고를 유발시킨다는 것을 명심합니다.

• 등화장치 작동으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자!



- * 방향지시등, 후미등, 비상등, 야간반사판 등을 반드시 부착합니다.
- * 등화장치의 작동상태는 수시로 점검하고 무농작업 후에는 반드시 청소합니다.
- * 트레일러에 짐을 실을 때는 뒤에 오는 운전자가 등화장치를 볼 수 있도록 과다하게 적재하지 않습니다.
- * 야간 또는 악천후에는 반드시 등화장치를 작동하고 감속하여 운전합니다.

방재정보광장

정책정보

■ 농기계별

• 경운기·관리기



- * 출입로는 이동시에는 작업기의 동력을 끄고 합시다.
- * 출입로는 회전부에 신체를 접촉하지 맙시다.
- * 출입로는 조향클러치는 저속주행 또는 논·밭에서 작업할 때만 사용합시다.
- * 출입로는 내리막 길에서 조향클러치는 평지와 반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 * 출입로는 조향클러치는 짧게 여러번 조작하여 선회합시다

• 트랙터



- * 출입로는 타고 내릴 때는 작업화의 진흙을 제거하고 승차용 계단과 손잡이를 이용합시다.
- * 출입로는 안전 캡 또는 프레임을 장착합시다.
- * 출입로는 도로 주행시에는 좌우 브레이크 페달을 반드시 연결합시다.
- * 출입로는 경사지에서 등고선 방향으로 작업할 때는 하중이 큰 쪽을 위쪽으로 향하게 합시다

• 콤바인



- * 출입로는 콤바인을 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는 사다리 길이는 차량적재함 높이의 4배 정도 되게 하여 안전한 경사를 확보합시다.
- * 출입로는 막힌 짐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합시다.
- * 출입로는 체인, 양곡기 등에 쌓여 있는 검불은 화재 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제거합시다.
- * 출입로는 논둑을 넘을 때는 직각 방향으로 운전합시다.

• 휴대형 예취기



- * 출입로는 작업 전에 병, 돌 등 이물질 제거합시다.
- * 출입로는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합시다.
- * 출입로는 작업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고, 작업반경 15m 이내에는 타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시다.
- * 출입로는 제초날을 톱 대용으로 사용하지 맙시다.